

PEOPLE

2025년 5월 8일 목요일



광주도시공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은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정태면)와 지난달 29일 빛고을고객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광주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협력, 승강기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 고장·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 임주민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승강기 안전정보 공유 등이다. 양동민 기자



KT, 어린이 AI 가족캠프 '성황'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고흥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KT AI 코딩 가족 캠프'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KT AI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캠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PBV(Purpose-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체험장을 마련해 인류가 거주할 거대 기지 'New 고흥City in 화성' 구축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가상공간인 화성에서 자율주행 차량 교구를 운도에 맞게 제작 및 코딩해 우주 기지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로 운영됐다.

특히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인 고흥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축제와 가정의 달에 맞춰 온 가족이 협력해 함께 코딩을 체험하며 어린이들이 우주에 대한 상상과 모험심을 자극하고 우주 개발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펼쳐는 계기가 됐다. 송대용 기자



평동농협, 금융사기 예방 교육

평동농협은 최근 본점에서 지역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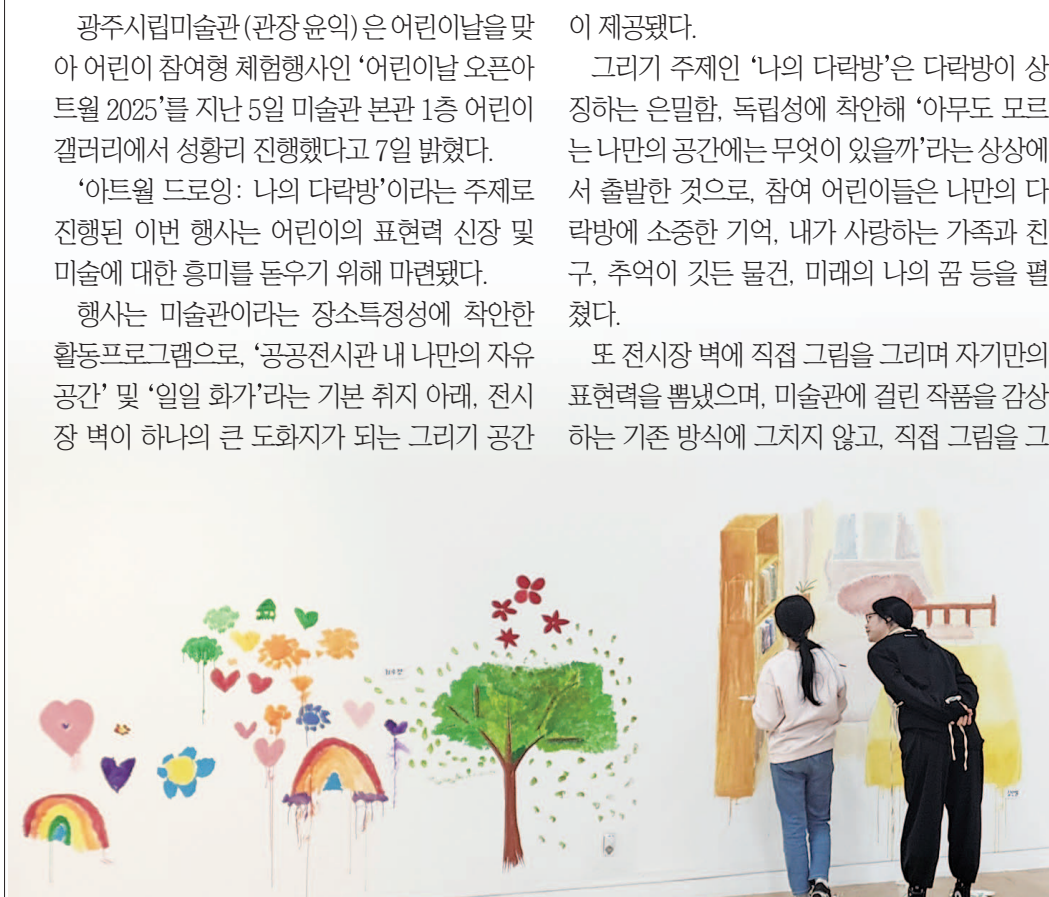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고령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동농협은 교육에서 점포 내에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전달했다.

특히 평동농협은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 고령층이 금융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소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미래 꿈나무가 느끼는 미술의 행복”

광주시립미술관, 아트월 드로잉 ‘나의 다락방’
어린이날 맞아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성황리 진행



정기명 여수시장, 지역 출신 행정고시 합격생 축하 간담회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시장이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지역 출신 인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끌 행정 리더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합격생 가족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행정고시 합격생 3명과 부모, 이동길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합격생들은 “여수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 드린다”며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기명 시장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자랑이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공직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리는 주제로 돼 미술에 대한 흥미를 더했다.

최인서 어린이(광주불로초교 1년)는 ‘해피’라는 주제로 다락방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바람을 담았으며, ‘다락방의 아승이’라는 자기만의 캐릭터를 선보인 같은 학교 6학년 성아인 어린이는 “미술 학원에서 작은 도화지에 그리던 그림을 큰 벽에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따뜻한 다락방”이라는 주제로 다락방 안 침대와 쿠션 위에서 책 읽기를 상상한 김민솔 어

린이(광주북초 6년)는 “미술관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신기했고, 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며 참여 후기를 전했다.

윤의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림을 그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미술이 선사하는 행복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립미술관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모든 세대가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다 열려있는 미술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익산국토청, 호남권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호남권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호남권 4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호남권 교통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호남권 교통안전 협의회는 익산국토청을 비롯해 국도사무소, 광주시, 전남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에서는 호남권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고령자, 화물차 및 농촌 교통안전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국토청에서 발표한 ‘호남권 교통안전 TheSMART 종합대책’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 호남권 특성을 고려, 5대 전략(안전강화·디지털 전환·협력강화·신속대응·정보공유)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유관기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 대책은 현장 중심의 호남권 협력체계 구축과

교통취약분야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화물차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교통문화운동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 착용’운동과 함께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단속 영역 확장 방안을 소개했다. 전남화물공제조합은 첨단안전장치(5체널 블랙박스) 시범 사업을 시행해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막연했던 취업 준비...선배들 조언 큰 도움”

전남여성 재학생들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진행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가 최근 재학생을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11년 이후 15년 연속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학교의 대표 진로 행사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선배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와 직장생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시간이다.

올해는 황금연휴가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명의 졸업생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실마다 진지하고 생생한 대화가 오갔고 진로 탐색을 앞둔 재학생들의 눈빛은 그

때마다 진지했다.

선배와의 대화는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행정직·세무직 9급 공무원, 한국은행·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하나은행·NH농협은행·삼성화재 등 금융권 실무자, 그리고 여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이 참여해 폭넓은 조언을 했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별 교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선배들과 밀도 높은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취업 후 진학’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해온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은 후배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또 매년 전남여상 졸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가 최근 재학생을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업생 선배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을 앞둔 박하영(19) 학생은 “막연했던 취업 준비가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경험담

이 앞으로 나이갈 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규명 교장은 “이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서로의 경험과 에너지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



동구,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7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대 수여,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서구, 옥상 옥외광고물 점검 광주 서구청 도시공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7일 치평동의 한 사기건물 옥상에서 서부경찰서, 서구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들과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 유무 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서구